

【다시 한 번 독서 추천】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이전 저의 애독서를 소개드려 호평을 받았기에 올 한해를 돌아보며 인상적이었던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올 가을 오카야마성을 축성했던 우키타 히데이에가 세키가하라 전투 후에 유배되었던 하초섬을 방문했는데 방문전에 다시 한번 더 읽은 책이 『우키타 히데이에노 마츠(우키타 히데이에의 소나무)』(시마다 나나에) 아울러 그냥 손에 잡힌 책이 『표류』(요시무라 아키라). 배가 난파되어 이즈쇼 섬에 표착한 선원 쇼헤이가 아오가 섬, 하초 섬으로 자력으로 건너 이윽고 고향인 토사로의 귀환을 달성했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이것에 감동받아 같이 읽은 『코네츠 즈이도(高熱隧道)』도 일류 작품이었습니다.

신문 광고를 보고 읽은 책 중에서 히트작은 『헤이조쿄』(아베 류타로). 이에 감동해 『카제노 고토쿠 미즈노 고토쿠 (바람과 같이 물과 같이)』 『세키가하라 랜판쵸 (세키가하라 결의서)』를 읽었습니다.

이책들은 지금까지 제가 알고있던 무장들의 모습이나 생각에 새로운 관점을 두는데에 납득이 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지금 수중에 『레온 우지사토』가 있습니다.

얼마전 츠보타 죠지 문학상을 수상한 카와카미 켄이치씨가 시청을 방문하신다고 해서 얼른 수상작인 『날개는 언제까지나』를 신간센에서 읽었습니다만 너무 재미있어서 3시간 반동안의 탑승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지난달 발행된 신간 『토펙』 (오카야마시 호칸초 상점가 등이 무대) 등 다른 작품도 꼭 읽어보고자 합니다.

같은 분야에서는 『가무사리 숲의 느긋한 나날』 (미우라 시온)은 임업의 본질을 그리면서도 재미도 주는 책으로 추천드리며, 연말에 텔레비전에서 방송되었던 『시타마치(변두리 마을) 로켓 가우디 계획』 『시타마치(변두리 마을) 로켓 고스트』 (이케이도 준) 도 잊을 수 없는 책의 하나입니다.

취미의 역사 관계에서는 『일할때 도움되는 교양으로서의 「세계사」』 (테구치 하루아키)를 읽고 일본의 역사를 세계의 흐름에서 보면 재미있다고 느껴 『세계사 안의 쇼화사』 (한도 카즈토시)도 읽었습니다. 조금 피곤해졌다고 느낄때 『쇼와의 괴물 일곱 수수께끼』 (호사카 마사야스)로. 이 책에서는 노트담 세이신학원 전 이사장인 와타나베 가즈코씨( 2.26 사건으로 살해 된 와타나베 죠타로의 딸)도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본기』 (모모타 나오키)의 모모타 월드도 독특하고 재미있으며 이소다 미치후미, 카쿠 코조, 혼고 가즈토 씨등 책이나 신문 칼럼 등은 무엇을 읽어도 재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상이 올해 읽고 「이것은」 이라고 생각한 책들이었습니다만,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빛나는 새해를 맞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